

## 기관허탈에서 기관내스텐트와 약침의 병용치료 1예

이준섭, 장하영, 이보라, 김정희, 김구용, 정순옥\*

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

**서론:** 기관허탈의 수술적 치료법 중 수술시간은 짧고 최소침습적이면서 치료 성공률이 높은 방법으로 기관내 자가확장성 스텐트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. 그러나 본 환축은 이러한 스텐트적용 후에도 적용 부위 외의 기관허탈로 인해 증상이 일부 잔존되었고 이는 약침을 병용함으로써 교정 할 수 있었다. 이에 대해서 보고 하고자 한다.

**재료 및 방법:** 11연령의 암컷 체중 2.3kg 요크셔 테리어 견이 기관 허탈증상으로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부속동물병원에 내원하였다. 환축은 특징적인 거위 울음소리 기침을 나타냈다. 단순방사선소견, 투시소견을 통하여 4등급의 기관허탈이 진단되었다. 프로포폴로 전신마취 후 투시 상태에서 나이트놀제제의 기관스텐트 (엠엔에스, 대한민국)를 경부기관 중간부터 흉부기관 중간까지 기관 내에 위치시켰다. 기관스텐트는 환축의 후두 바로 뒷지점의 기관 직경의 10% 증가값, 경부기관 중간지점부터 흉부기관 중간지점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. 약침은 BL-13, GV-14, ST-40, LI-4, LU-7, LU-5, LU-6 혈위에 부토파놀 (0.2mg/kg)을 3일간격으로 총6회 주입하였다.

**결과:** 기관내스텐트 시술 후 다음날 기침 증상이 감소되었고 3일 후 퇴원했으나 퇴원 후 기침 증상이 증가하여, 약물 치료를 실시하였다. 그러나 새벽에 발생하는 잔기침 및 복식 호흡은 개선되지 않았다. 이 후 약침을 적용하여 이러한 증상들이 호전되었다.

**임상적의의:** 기관내스텐트 삽입술은 임상증상을 현저하게 소실시키는 시술이 용이한 최소 침습적인 기관허탈의 효과적인 치료방법이지만 본 증례에서는 적용 부위 이외의 기관허탈로 인해 임상증상이 일부 잔존하였고, 이는 약침을 병용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었다.

\* Corresponding author: swjeong@konkuk.ac.kr